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research related to lay ministry as a prerequisite for the ministry competence of lay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Through trend analysis, it was possible to explore complementary and strengthening elements for lay ministry, and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on wha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and orientation of lay ministry within the Korean church. To this end, this study explored the competence in research by classifying them by educational area, pastoral structure, and pastoral ministry, focusing on competencie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within lay ministry. Through analysis result, 'unclear awareness of the purpose of discipleship training, lack of sense on mission and passion as leader, lack of sense of co-operation, lack of community leadership of the district leader, lack of awareness of discipleship among lay ministers, lack of understanding on concept of lay ministry and scope of ministry' were identified as key elements.

Key words: Korean church, laity, competence, exploring, complementary and strengthening elements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평신도는 소모임 사역자다. 예컨대 한국교회는 처음 복음이 전파된 후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소수의 목회하는 교역자와 다수의 목회대상자인 성도로 구성되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자격을 갖춘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도를 하나님나라 제자로 양육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구조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 성장 및 학력 신장의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한국교회의 양육 방식이 교역자 중심에서 평신도의 제자 양성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신도의 역할도 강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국(2004)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집회를 통하여 수동적으로 설교를 듣는 차원을 넘어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 확대에 힘입어 지식인 집단의 적극적인 양육 활동(성경공부 중심)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지적해주었다. 실제로 한국교원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연도별 졸업자수(2021), 연도별 입학자수(2021)

에 의하면, 한국사회 대졸자 비율은 1997년 19.8%에서 2019년 50.0%로 25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원 졸업자도 석사는 2000년 57,226명에서 2019년 82,137명으로, 약 50%, 박사는 2000년 6,153명에서 2019년 15,308명으로 약 250%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고등교육 수혜자와 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가 증가하여 학력 인프라가 사회전반에 폭넓게 구축되었고, 이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져 사역적 지원과 심층적인 양육에 대한 교육적 열망들이 강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단순히 목회의 대상자였던 평신도가 이젠 수동적 대상자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교역자의 목회 동역자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모임 사역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교역자의 안내와 기도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특징은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사역의 교회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걸쳐 포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신도의 소명적 역할은 교역자에 의한 하나님나라 확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듯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사항들은 교회 내 사역의 다양화와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교회의 노력과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술한 평신도의 교회 내 사역 활동은 교역자 중심의 교회 내 사역의 다변화와 평신도의 은사의 활용 및 참여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성장 및 하나님나라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평신도는 한국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한다. 이상화(2023)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성전으로 대표되는 대그룹과 집으로 대표되는 소그룹 모임을 균형있게 강조하여 부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소그룹 모임에서 깊이있는 말씀연구와 친밀한 교제,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드리는 내밀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섬김과 나눔이 있었고, 집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채일(2022)에 의하면, 성경적이고 온전한 공감과 소통이 발위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증대가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에 서술한 소모임 자리에 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한 곳에 바로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자의 사역 역량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평신도 사역과 관련된 연구에 나타난 역량을 탐색하고자 하며, 역량 탐색을 통해 평신도 사역을 위한 역량의 보완 및 강화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 역량 연구물헌 고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육 영역별, 목회 구조별, 목회 사역별로 보완 및 강화해야 할 역량을 탐색한다(영역별 역량 탐색).

둘째,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 역량 연구물헌 고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완 및 강화해야 할 핵심 역량을 탐색한다(핵심 역량 탐색).

II. 평신도사역의 개념과 범위 및 사역역량의 개념

1. 평신도사역의 개념과 사역 범위

평신도사역이란 평신도에 의한 사역을 말한다. 한국교회에서 평신도란 교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데, 평신도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평신도의 원래 개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으므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옥한흠(199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라이코스’는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라오스’와 그 의미가 같다. 이 용어에는 ‘백성’,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라는 의미가 있다. 세속에서는 헬라 시대의 전 시민을 가리켰고, 성경에서는 초기에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다가(행 4:10) 나중에는 예수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행 15:14). 하지만 이 용어가 어떤 특징이나 한 그룹을 가리켜 사용된 사례는 신약성경에서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언제나 백성 전부를 포괄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신도라고 할 때는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제자,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교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금희(2017)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사실 ‘만인제사장’개념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념이며 평신도를 언제까지나 교회의 간섭과 보호와 교육 아래 머물러야 할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평신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장로직에 역할은 가르치는 자로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고 집사직의 역할은 구제하는 자로 물품 전달과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평신도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장로직과 집사직에 있는 성도로서, 목장, 구역, 다락방 소모임에 사역자로 부름받아,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사역의 교회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역의 포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평신도사역자의 사역 범위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목회자의 정체성과 고유한 사역적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할 수도 없다. 하지만 평신도사역자 역시 작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사역적 활동을 나누며, 안정감있는 지도 안에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평신도사역자의 사역 범위는 목사의 사역 범위와 함께할 수 있으며 찬양, 중보기도와 같은 부분사역과는 구분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들의 모임으로,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부른다. 이는 각각 평신도를 왜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신분상 성직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준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소모임 평신도사역자가 삶을 통한 말씀의 선포자요, 이웃과 소모임원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작은 목회자라고 생각한다.

2. 역량 그리고 보완 및 강화 요소의 개념

역량이란 관련 업계에서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행동특성이다. 역량은 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해내는 실행력으로 역할을 수행해내는 능력과는 구분되며 지식, 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오현석(2007)은 ‘역량의 개념과 역량에 대한 접근방법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는데, 역량의 개념이 단일 차원에서 정의되기 어려운 다차원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 이흥민, 김종인(2005)은 역량을 업무 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혹은 행동적 특성, 특정 조직이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을 정의한 McClelland(1973)의 주장과 개인의 업무 성과와 관련이 높고, 조직의 성과 기준과 대비하여 측정 가능하면서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개념을 정의한 Parry(1996)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처럼 역량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영찬(2023)에 의하면, “역량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이다”. 첫째로 공통 역량은 조직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공통된 역량이고 둘째로 리더십 역량은 리더나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관리상 필요한 역량이고 셋째로 직무역량은 직무에서의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역량이다. 또 권현희(2022)에 의하면, 역량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와 실무진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흐름을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역량을 인적자원관리의 성공적인 수단으로 보는 경향으로써 주로 행정학계, 경영학계의 관심사이고 또 하나는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의 성과를 판별하기 위한 준거로서의 역량을 밝혀내고 개발하려는 경향으로써 주로 정규 교육기관, 직업 교육기관, 평생 교육기관 등을 담당하는 교육학계의 관심사이다. 이는 두가지 모두 개인의 역량을 찾아내어 개발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공통점은 있지만, 역량을 수단적 가치로 보는가 목적적 가치로 보는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평신도사역자의 역량 또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평신도 사역은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목회선교학 등 여러 다양한 학문적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평신도사역자 역량의 개념은 교회 공동체의 목회 방향에 따른 교육과 교제, 선교와 봉사 사역의 입

장에서 균형있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평신도 역량은 리더십 역량이고 수단적 역량이다. 리더십 역량이라 함은 평신도 사역자가 소모임의 리더이기 때문이고 수단적 역량이라 함은 평신도 사역 역량은 모임을 하나님나라가 되게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완 및 강화'되어야 할 요소도 존재할 것이며, 이는 평신도 사역의 범위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완과 강화라 함은 위에서 개념 정의한 대로 목회 사역의 여러 요소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뒷받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평신도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안내로 이루어지며,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목회 사역 중 어느 하나의 사역에 국한되기 보다 여러 사역에 걸쳐 폭넓게 행해지며, 하나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교회 공동체의 중간 리더의 권위를 가진 평신도사역자에 의해 하나님나라 형성을 위한 수단적 사역이 될 수 있다. 이를 전제하기에 각 사역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들이 무엇인가를 살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 역량 연구에 나타난 역량 탐색

1.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 역량 연구에 나타난 보완 및 강화 요소 고찰 과정

본 연구는 한국교회 내에서 소모임 대상 평신도 사역 역량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야는 특별히 평신도사역자에 의하여, 1980년 즈음부터, 가정기반, 구역기반, 제자훈련기반의 교회에서의 소모임 사역 역량 연구이다. 연구자의 신앙 배경에 근거하여 볼 때, 가정기반 소모임은 현재 경험하고 있고 제자훈련기반 소모임은 직전에 경험하였고 구역기반 소모임은 폭넓게 알려져 있다고 보고, 이 세 가지 소모임 유형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고, 관련 연구가 1980년 즈음부터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소모임을 통한 평신도 사역자의 사역의 터가 마련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문헌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평신도, 평신도사역을 주요 단어로 연구 문헌의 제목이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1차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한 연구 문헌 중 다시 범위를 가정기반교회, 구역기반교회, 제자훈련기반교회 관련 연구 문헌으로 좁혀 제목과 내용을 검색하였고 연구 기간은 1980년부터 최근까지로 국내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62개 연구목록을 1차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62개 연구를 대상으로 다시 연구 내용 중에 '부족한 점, 단점, 한계점, 약점, 아쉬운 점'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 또는 이와

유사한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를 찾아내려고 고찰하였다. 찾아 낸 내용 중에 교회나 기관 요인, 교육과정이나 체제 요인은 제외하고 가능한 개인 요인만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고찰하였고 복수의 연구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의 것은 반복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 2차로 16개 연구 목록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출한 16개의 연구 목록을 대상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보완 및 강화 요소의 세부 주제를 찾기 위해 고찰하여 24개의 보완 및 강화 요소 주제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이 절차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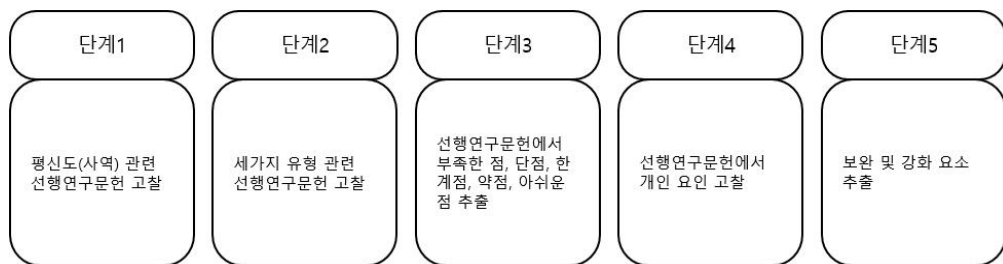


그림 1. 보완 및 강화 요소 추출 과정

본 연구의 주제가 평신도사역자 역량의 보완 및 강화 요소에 대한 것이므로, 24개의 주제를 ‘교육 영역, 목회 구조, 목회 사역’의 세 가지 범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교육 영역별로는 ‘지식, 이해, 태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둘째 목회 구조별로는 ‘가정기반교회, 구역기반교회, 제자훈련기반교회’로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셋째 목회 사역별로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6개 연구의 24개 보완 및 강화 요소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두 차례에 걸친 중복 검토를 거쳤다. 전문가 패널 구성의 특징은 첫째로 서울, 경기, 전라, 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전문가 패널 15인이며, 둘째로 평신도사역자 집단, 교역자 집단, 프로그램 운영자 집단으로 한국교회 내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 패널 15인이며, 셋째로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소모임 목회 구조를 수용하여 목회하고 있는 가정기반, 구역기반, 제자훈련기반의 교회에 소속해 있는 전문가 패널 15인이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자 역량의 보완 및 강화 요소에 대해 24개를 선행연구문헌으로부터 추출하였고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4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6개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한 보완 및 강화 요소 주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2.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강화해야 할 세부 영역별 역량 탐색

(1). 관련 연구의 교육 영역별 분포와 특성

연구는 한국교회 평신도사역자 보완 및 강화 요소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분류는 지식, 이해, 태도로 한다.

표 3. 관련 연구의 교육 영역별 분포표

교육 영역	지식	이해	태도
논문수	3	13	8

한국교회 평신도사역자의 보완 및 강화 요소 24개를 교육 영역별로 분류해 본 결과, 이해 영역의 13개, 태도 영역에 8개, 지식 영역에 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신도사역자가 소모임 사역을 할 때 지식이 부족하여 알지 못하기 보다는 태도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 태도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포상으로는 자료량이 적지만 이해 영역에서 50% 이상의 비율과 태도 영역에서 30% 이상의 비율이 나타나므로 평신도사역자의 80~90%는 소모임 운영에 대해 이해와 태도 면에서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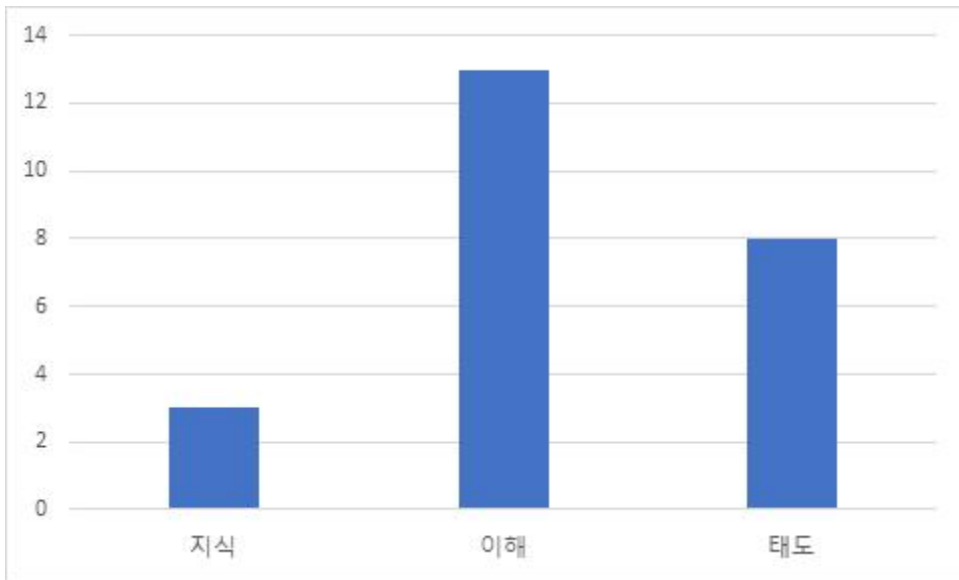


그림 4. 관련 연구의 교육 영역별 분포와 특성

(2). 관련 연구의 목회 구조별 분포와 특성

연구는 한국교회 평신도사역자 보완 및 강화 요소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분

류는 가정기반교회, 구역기반교회, 제자훈련기반교회로 한다.

표 4. 관련 연구의 목회 구조별 분포와 특성

목회구조	가정기반교회	구역기반교회	제자훈련기반교회
논문수	9	5	13

한국교회 평신도사역자의 보완 및 강화 요소 24개를 목회 구조별로 분류해 본 결과, 가정기반교회 연구 수 9개, 구역기반교회 연구 수 5개, 제자훈련기반교회 연구 수 13개로 나타났다. 이는 제자훈련기반교회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은 가정기반교회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구역기반교회에 관한 연구 순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자훈련기반교회의 부흥기는 본 연구 고찰 기간과 제법 맞닿아 있고, 가정기반교회의 부흥기는 본 연구 고찰 기간과 절반 정도 맞닿아 있으며, 구역기반교회의 부흥기는 본 연구 고찰 기간보다 제법 떨어진 이전 시기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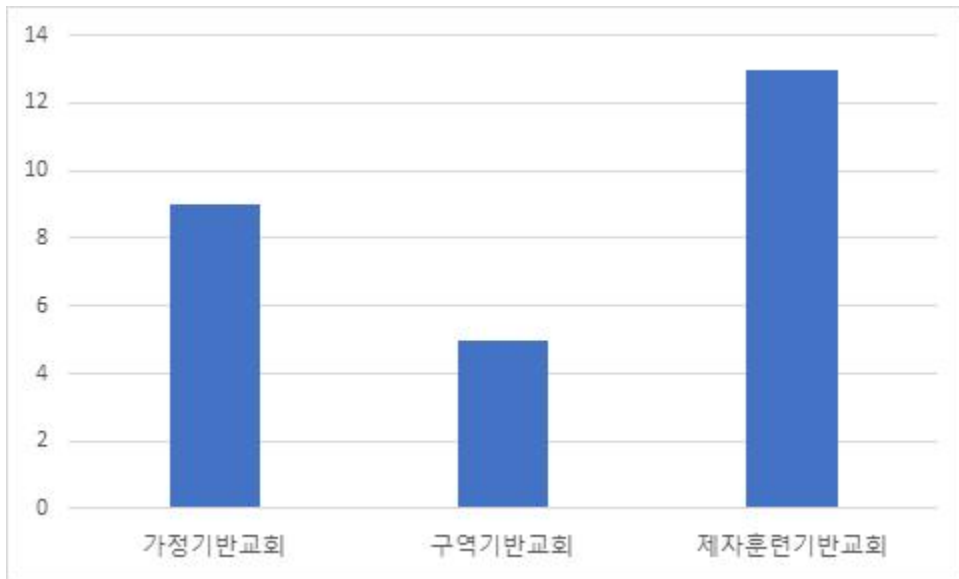


그림 5. 관련 연구의 목회 구조별 분포와 특성

(3). 관련 연구의 목회 사역(교회 요소)별 분포와 특성

연구는 한국교회 평신도사역자 보완 및 강화 요소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분

류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로 한다.

표 5. 관련 연구의 목회 사역(교회 요소)별 분포와 특성

목회사역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논문수	1	10	6	3	4

한국교회 평신도사역자의 보완 및 강화 요소 24개를 목회 사역별로 분류해 본 결과, 예배 사역 1개, 교육 사역 10개, 교제 사역 6개, 전도 사역 3개, 봉사 사역 4개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사역의 부족이 현저하게 많고 다음으로 교제 사역 부족도 제법 많고, 봉사, 전도, 예배 사역의 순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교육 사역과 교제 사역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소모임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며, 부족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 강화해야 할 사역임을 알려준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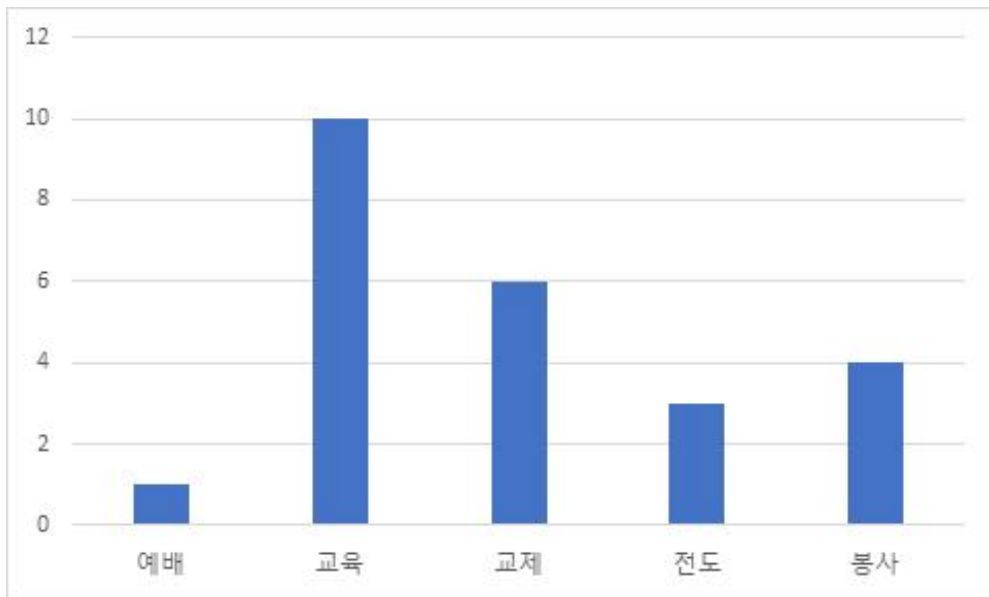


그림 6. 관련 연구의 목회 사역(교회 요소)별 분포

3.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 역량 연구에 나타난 보완 및 강화해야 할 핵심 역량 탐색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 역량의 보완 및 강화 요소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여 62개의 연구를 선별하고, 그 중에서 보완 및 강화 요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6개 연구를 다시 선별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보완 및 강화 요소 24가지에 대한 타당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번에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가지의 보완 및 당화 요소를 선정하였다(표 6).

표 6. 강화 및 보완 요소의 검토과정별 내용타당도(CVR) 결과표

연번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보완 및 강화 요소	1차 검토결과	2차 검토결과
1	은사에 따른 사역분담 전문화 부족, 은사개발과 무관한 훈련		
2	가정교회 내 교리와 성경 교육 취약		
3	가정교회 내 기도제목 공유 및 적용 제한성		
4	제자훈련의 율법주의적, 권위주의적 현상 우려		
5	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
6	피훈련자의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부족		
7	피훈련자의 전인적 필요에 대한 인식 부족		
8	서번트 리더십 인식의 부족		
9	강한 양육 방식으로 훈련자가 제사장이 될 우려		
10	깨어진 인간관계를 개선되게 하는 유기적 관계 부족		
11	교제의 어려움		
12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의 부족	○	○
13	가정교회는 봉사 영역에서 복음전파 지나치게 강조		
14	섬김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15	제자훈련의 목적 의식 불투명	○	○
16	구역장의 의식 부족		
17	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	○
18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		

19	목자의 헌신 부족		
20	전도 역량 부족, 재생산 능력 부족		
21	평신도사역자의 분열이 조장될 우려		
22	제자의 사유화 현상 초래		
23	문화명령을 소홀히 할 우려		
24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상호간 동역자 의식 부족, 신뢰 관계 형성 필요	○	○
25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	○

* 25번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행 연구에서 추출하지는 못했으나 전문가 패널 1차 검토 결과 추가된 것이다.

교육 주제에 대한 1차,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내용타당도(CVR)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표 7)와 같다.

표 7. 내용타당도(CVR)를 기준으로 한 교육 주제의 1차, 2차 설문 결과 분석

순위(CVR) 5-7번에 응답한 수	1차설문 결과	2차설문 결과
1순위(0.86-1.0) 14~15명	12.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의 부족 15. 제자훈련의 목적 의식 불투명 17.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24.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상호간 동역자 의식 부족, 신뢰 관계 형성 필요	5. 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12.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의 부족 15.제자훈련의 목적 의식 불투명 17.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24.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상호간 동역자 의식 부족, 신뢰 관계 형성 필요 25.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2순위(0.6-0.73) 12~13명		
3순위(0.33-0.46) 10~11명		
4순위(0.2이하) 9명 이하	5.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19.목자의 헌신 부족	19.목자의 헌신 부족

두 번에 걸친 전문가 패널의 검토 결과, 내용타당도(CVR)를 확보한 5번, 12번, 15번, 17번, 24번, 25번 교육 주제가 선행연구문헌 연구자의 주장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와 주장 내용은 (표 8)와 같다.

표 8. 교육 주제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일치한 선행연구문헌 분석

순번	교육 주제	연구자	주장 내용
1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의 부족	김 성 국 (2010)	교회가 사회에 대해 올바른 봉사를 하지 못하는 곳에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
2	제자훈련의 목적 의식 불투명	육 한 흠 (1998)	제자훈련의 목적은 다락방을 운영할 운영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 즉 믿음과 신앙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3	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김 영 화 (2002) 이 길 강 (2008)	구역장을 임명할 때 직분을 따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지만 구역장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양을 바로 인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자로서, 열정이 없는 구역장은 구역에 구성원들이 모이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구역장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랑과 목장의 부흥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한다
4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상호간 동역자 의식 부족, 신뢰 관계 형성 필요	김 명 호 (2008) 김 영 화 (2002) 문 일 규 (1992)	가정교회에서 성공하려면 평신도에게 목회권을 많이 이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사이에 동역자 의식에 기초한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각 가정교회가 공동체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사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김 성 환 (2013)	제자훈련에 의해 깨어난 평신도로 인해 과연 한국사회에 공의와 자비가 가득찬 하나님나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으므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지문하게 한다
6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권 윤 혁 (2023)	평신도와 전문사역자간의 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평신도사역의 정확한 개념 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목회 구조별로 분류하여 문항과 전문가 패널 유형간의 동의율을 분석해 보면 (표 9)와 같다. 이는 목회 구조별로 관련 교육 주제 문항에 대해 동일 목회 구조에 속한 교회의 전문가 패널이 얼마나 동의하였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표 9. 목회 구조별 교육주제와 전문가 패널 유형간 동의율 비교 분석

목회 구조	교육 주제	답한 수/유형별 전문가 패널 수		
		가정기반	구역기반	제자훈련기반
구역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의 부족	5/5	3/3	7/7
제자	제자훈련의 목적 의식 불투명	5/5	3/3	7/7
구역	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5/5	3/3	6/7

가정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상호간 동역자 의식 부족, 신뢰 관계 형성 필요	5/5	3/3	7/7
제자	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1/5	3/3	6/7
제자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4/5	3/3	5/7

(표 9)에서 동의율은 설문 조사에서 문항별 설문 결과가 선택지 1번~7번 중에서 5번~7번을 선택한 패널의 비율을 의미한다. 먼저 1번, 2번, 3번, 13번, 14번, 16번, 19번, 20번, 21번, 23번 문항은 자기가 소속한 교회의 목회 구조와 관련한 문항을 다른 교회의 목회 구조와 관련한 문항보다 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8번, 22번 문항은 동의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동의율과 낮은 동의율 문항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가 패널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구조에 대한 무비판적 긍정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4개 중 약 80%에 달하는 18개의 교육 주제가 내용 타당도(CVR)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자의 주장 내용에 대해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들은 80%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하지만 사역자의 영성과 그가 처한 상황의 독특성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선행 연구자가 주장한 보완 및 강화 요소가 비록 내용타당도(CVR)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자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교회 평신도사역자 보완 및 강화 요소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최종 6개 주제가 보완 및 강화 요소로 선정되었다.

관련 연구에서 추출한 24개 주제가 1차 전문가 검토를 거쳐 4개로 압축되고 다시 2차 전문가 검토를 거쳐 6개로 최종 선정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평신도 사역을 위한 역량의 보완 및 강화 요소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교회 내 평신도 사역의 발전적 방향과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선형적으로 살펴보는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평신도 또는 평신도 사역 관련 연구는 1980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조금씩이라도 그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평신도사역자가 강화해야 할

역량을 세분화시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 교육 영역별, 목회 구조별, 목회 사역별로 탐색하였다. 교육 영역별로 탐색하면, 지식 영역에서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이해 영역에서 제자훈련의 목적 의식 불투명과 구역장의 지역사회 리더십 부족과 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태도 영역에서 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과 목자의 교역자와 동역의식 부족의 내용을 역량으로 도출하였고, 목회 구조별로 탐색하면, 가정기반 교회의 평신도사역자인 목자는 교역자와의 동역의식의 부족을, 구역기반 교회의 평신도사역자인 구역장은 사명감과 열정의 부족과 지역사회 리더십의 부족을, 제자훈련기반 교회의 평신도사역자인 순장은 제자훈련 훈련과정의 목적의식 불투명과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의 내용을 역량으로 도출하였고, 목회 사역별로 탐색하면, 교육 사역에서 제자훈련의 목적 의식 불투명, 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평신도지도자와 교역자 상호간 동역자 의식 부족과 신뢰 관계 형성 필요,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을, 전도 사역에서 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 부족의 내용을 역량으로 도출하였다. 종합하면,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자의 사역 역량 연구에서 순장의 제자훈련 목적 의식 불투명, 구역장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목자의 교역자와 동역의식 부족, 구역장의 지역사회 리더십 부족, 평신도사역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부족, 평신도사역의 개념 정의와 사역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의 내용을 핵심 역량으로 도출하였다.

해당 사항을 바탕으로 평신도 사역을 위한 보완 및 강화 요소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 내 평신도 사역의 발전적 방향과 지향점이 전술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교회 평신도의 사역을 소모임 사역만으로 한정된 것이며, 또 대상이 되는 소모임 유형을 가정기반, 구역기반, 제자훈련기반의 교회 소모임으로 한정된 것이며 세부 영역을 교육 영역, 목회 구조, 목회 사역으로 한정하여 역량을 탐색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평신도 소모임 사역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한 소모임 유형별 역량을 탐색하고 실증적인 평신도 사역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리더별, 여성 리더별, 외국인 대상 사역자별 역량 탐색과 같은 세분화된 연구도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현희 (2022). 교회학교 유아 사역자의 역량 및 증진방안 연구.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1-30.
- 김남용 (2003). 교회 구역소그룹을 통한 목회적 돌봄. 수도권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 Vol.5 No.-[2003], 6.
- 김명호 (2008).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운동의 비교 연구. 신학정론 제 26권 1호, 181-182.
- 김성국 (2010). 구역장의 리더십개발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목회 신학적 연구 **혜현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15-16.
- 김성환 (2013). 21세기 제자훈련의 방향에 대한 연구;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관점에서. 광신대학교 출판부 **광신논단** Vol.22 No.-[2013], 374-375, 380, 385.
- 김영화 (2002). **중소교회에서 소그룹구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 총신대학교 국내석사학위논문, 70-73.
- 김충호 (2000) 기독교 강요 번역본. **한국출판사** 4권 34-45.
- 김형태 (2007). **신약의 가정교회와 현대 가정교회 운동에 대한 평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53.
- 문일규 (1992). 평신도 제자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총신대학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교육연구** Vol.3 No.1[1992], 97.
- 박만규 (2011). **평신도 제자훈련의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62-66.
- 심상범 (2007).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격적 평가와 전망. **신학지남사** Vol.74.No.1[2007], 190-191.
- 신정엽 (2020). **교육목회적 측면에서 본 가정교회의 가능성과 한계성: 교육목회적 관점에서 고찰**.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109-110.
- 양금희 (2017).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Vol.49. No.1[2017], 79-80.
- 여동현 (2004).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36, 60-61.
- 오현석 (2007).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Vol.47 No.-[2007], 191-213.
- 옥한흠 (1998).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출판부, 37.
- 옥한흠 (2006). **작은 예수가 되라**. 국제제자훈련원출판부, 1.
- 윤성구 (2009). **地域教會 青年部 소그룹 活性化를 위한 弟子 訓練 方案**.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147-152, 220-230.
- 윤훈중 (2015). **평신도사역을 위한 목회구조 활성화 방안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159-160, 179-187.
- 이길강 (2008). **구역장 소그룹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교구 활성화 방안 - 영세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7-8, 39.
- 이상화 (2023). 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소그룹 운영방안.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5(2) 82~96
- 이흥민 김종인 (2005). **핵심역량, 핵심인재 인적자원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과 역량평가**. 한국능률협회 p21.
- 조성국 (2004).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논총** 제 10집,

203-210.

채일 (2022).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할: MZ세대를 중심으로.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4(2) 1~20

최선화 (2005). **한국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의 역사 고찰과 전망**. 고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769-77, 83.

허남기 (1993).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교회 통권** 203호 특집, 14-15, 18-19.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 2023.4.16.일자 [역량의 3가지 종류]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ob-analysis&logNo=223076178900>(검색일 2023. 11. 30.)